“북한이탈민 증가, 불교계 관심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2월 9일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장학 · 의료 서비스 지원 요청
공공조직 · 불교 보완 방법 모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9일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불교사회복지포럼.

현재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불교계가 국내 정착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박현숙 강원남부하나센터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조성희 교수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불교계 활동을 짚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불교계는 하나센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케어센터 1개, 북한이탈주민 쉼터 1개, 기타 단체 3개 등 총 12개의 기관 · 단체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다. 이 점을 고려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관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찰 중심의 자조집단과 지지모임을 운영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 노인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망 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북한과 중국 등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며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통일시대 가교역할을 불교계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이 같은 발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불교계의 역량을 짚으면서 범종단적인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탈북과정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웃종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원 입소 후에도 이들 종교단체와 지속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사찰의 참여, 사찰신도들의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 불교계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포교정책 마련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범종단적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 대표사찰을 북한이탈주민 긴급 지원센터로 지정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특성 고려한 전문상담 및 불교체험 센터 개소 △공공지원센터와 유대관계 통한 활용법 모색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종책에 반영하거나 불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조차 전개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게 현실”이라며 “불교계가 독자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할 순 없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해 상호 보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다.

대불련총동문회 제29대 회장에 홍경희 씨

12월 7일 임시총회서 선출…“부처님 심부름 생각” 소감 밝혀



대불련총동문회 29대 회장에 홍경희(서울대 74학번, 사진) 씨가 선출됐다. 대불련총동문회는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115명 중 80명이 참가해 투표했다. 앞서 29대 대불련총동문회 회장 선거에는 홍경희 신임회장과 유선재 씨가 입후보 했으며, 홍 신임회장은 4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홍 신임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초석을 다져온 전임 회장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실행하는 것이 차기 지도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10년을 계획한 플랜들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업 실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지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신임회장은 “조직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문회는 현재 학번별 지부별 등 씨줄과 날줄로 탄탄한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리의 벗이요 얼이며 빛으로 모인 여러분의 탄탄한 손길을 단단히 잡겠다. 서로서로에게 화엄장이 되어 세상 밝히는 원력 불사의 결실로 후배들에게 희망과 귀감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신임회장은 “어느 자리에 서 있거나 어떤 이름을 얻거나 제가 조직위원장 시절 부처님의 심부름이라 생각한 대로 열심히 회장 소임에 임하겠다. 모든 것들의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하신 부처님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신임회장은 서울대 국악과 재학시절 서울대 총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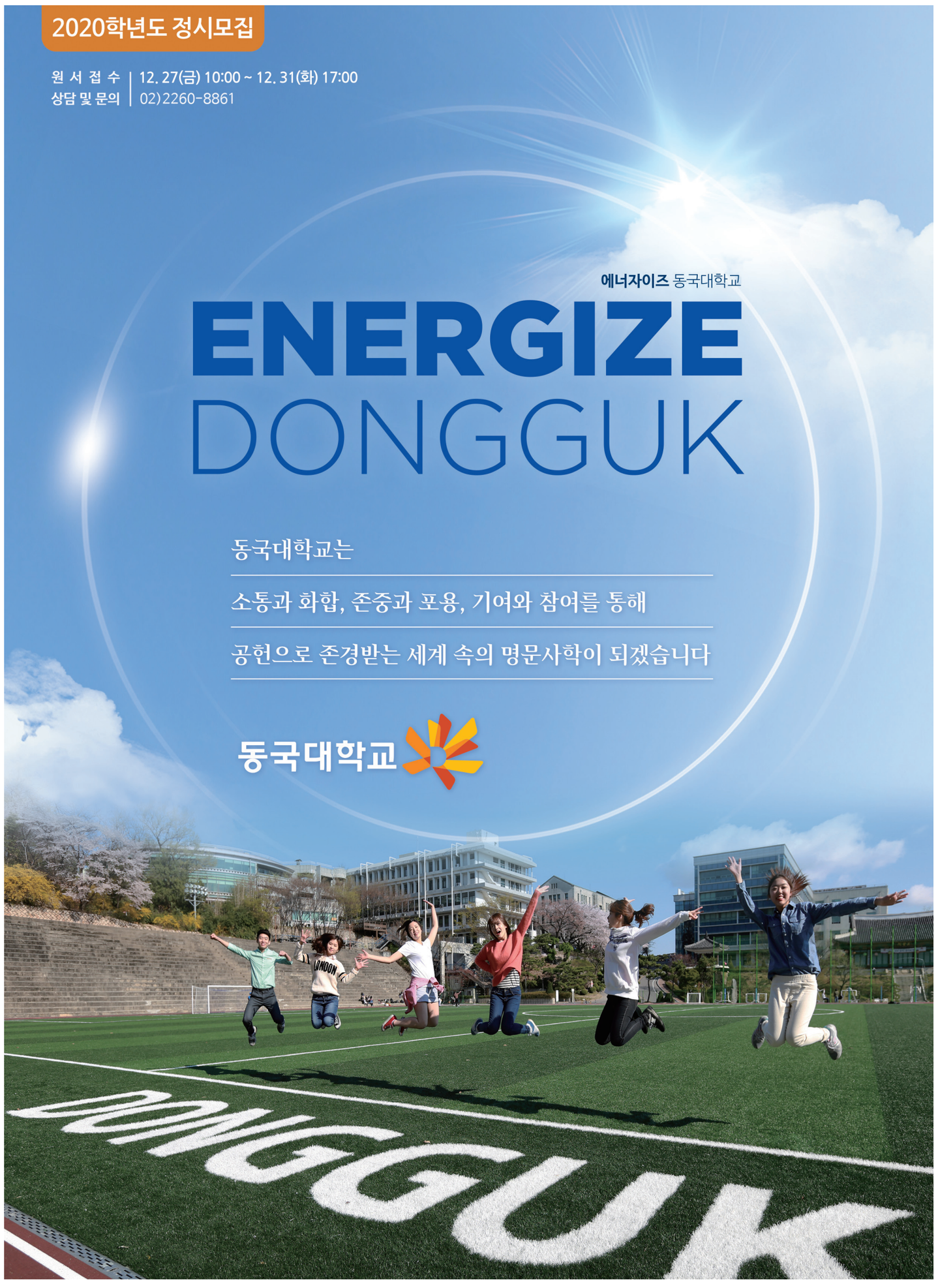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이어 열린 송년법회에서는 대학전법지원단의 동아리방 리모델링 추진 영상인 ‘불타는 동아리방’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정성룡 서울교대 불연 동문회장이 서울교대 불교동아리 복원사례를 발표했다.

또 올한해 대불련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정성룡, 최은희, 장혁, 유진우 씨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송년법회 2부에서는 윤제철 씨의 만해선사를 기리는 시 낭송을 비롯해, 이화여대 학생들의 한국무용 공연과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조수황 전 회장의 판소리, 중앙대 불교학생회원들의 붓붓밴드 공연 등도 펼쳐져 감동을 더했다.

백효흠 28대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총동문회 창립 50주년을 넘어서 처음으로 여법우가 회장에 선출되는 경사”라며 “경선이지만 화합을 통해 선후배가 하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로터스월드, 미얀마 정수시설 6곳 설치

12월 5일 완료, 유명 달리한 후원자 유지 실천



바호시 공립학교 직원들이 정수시설 앞에 서 있다.

국제구호NGO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2월 5일 미얀마 양곤과 바고지역 사원 및 공립학교 6곳에서 정수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정수시설 설치는 10월 유명을 달리한 한 후원자가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에 후원 사업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이 로터스월드에 미얀마 정수시설 준공을 요청해 이뤄졌다.

로터스월드는 후원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후원자의 49재날인 12월 10일 이전에 총 6곳의 정수시설을 완료하기로 결정, 가장 상황이 열악한 ‘양곤 마잉 난나니 사원학교’ 등 6곳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설치에 들어갔다. 이번 정수시설 설치로 6개 학교 총 4516명의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가 설치한 정수시설은 활성탄 정화시설과 자외선 살균소독기, 울트라 필터, RO 필터가 결합된 형태로 오염된 물의 정수나 염분 제거,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수시설의 내구성과 수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로 선진국들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인 A/S 등을 위해 미얀마 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 부품들로 정수시설을 구성했다.

정수시설을 지원 받은 ‘짜이끌럿 난나니 학교’의 교장인 ‘도 유자 나 와티’ 스님은 “학생 350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축된 정수시설의 혜택을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를 밝혔다.

한편, 2010년 미얀마 지부를 설치한 로터스월드는 마그웨이주 론하우 마을에서 축분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바이오플랜트를 건립하고, 양곤주 쭝글리마을에서 자야 스웨따웅 사원학교를 신축하는 등 미얀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육해공 장군, 부처님께 진급을 고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12월 5일 장군 진급 고불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2월 5일 용산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2019 장군 진급 불자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고불식에는 11월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불자장군 22명 중 육군 준장 고현석 · 조재식, 공군 준장 류진상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물한 장군 지휘봉을 불자장군들에게 전달했다. 선묵 혜자 스님의 저서 〈평화의 불 수놓다〉와 호신불카드, 파랑새 액자도 전달됐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타인이 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본심으로 주체가 되어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행복해질 것”이라며 “국군의 중심 계룡대에선 출입절차로 인해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육해공군 삼군영외법당을 건립불사 원력을 세웠다”고 관심도 당부했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성광 스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와 광명이 온누리에 다하길 축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장군진급자 대표로 나선 고현석 장군은 “주말과 새벽에도 언제나 법당문이 항상 열려있드시 지휘봉에 적힌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을 깊이 세기고 생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진급한 불자 장성들은 “앞으로 불교를 더욱 더 배우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며 “군의 발전은 물론, 군불교 발전을 함께 염원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한편, 올해 장군 진급자는 총 70명으로 이중 육군 17명, 해군 1명, 공군 4명 등 22명이 불자 장군이다.

노덕현 기자